

# 삼성, 스마트폰 세계 1위 수성 박차... 연내 'S22' 출시 검토

## Galaxy

SAMSUNG

부품 공급사와 양산 일정 논의 중  
AMD 협업 제작 AP 첫 장착 기대  
2억화소 센서 등 플래그십 성능 개선

갤럭시가 아이폰 잡기 총력전에 나선다. 스마트폰 세계 1위를 사수하기 위해 플래그십 조기 출시와 폴더블폰 시장 선점, 라인업 개편 등 다양한 전략을 단행하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를 조기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갤럭시 S21과 같이 내년 1월이 유력하지만, 올해 안으로 출시를 하기 위해 부품 공급사들과 양산을 앞당기기 위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또다시 조기 출시를 단행



삼성전자는 올해 1월 갤럭시 S21 시리즈를 전세계에 조기 출시했다.

/뉴시스

하는 이유는 애플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가 다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프리미엄 시장을 다시 공략하며 세계 1위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아이폰이 거의 독식하는 분위기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아이폰

12와 프로, 프로맥스 등 시리즈는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상위권을 독차지했다. 뒤이은 모델 역시 아이폰11이었다. 매출액 기준 점유율로도 애플이 절반 수준의 압도적인 1위다.

갤럭시 S21은 예상보다 판매량이 저조했다. 출시 초기 국내에서는 갤럭시 S20보다 50%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글

로벌 시장 부진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상반기 기준으로는 갤럭시S20보다 350만대나 적은 1350만대에 그쳤다.

갤럭시Z시리즈가 선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폰에 대응하기에는 생산량을 높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생산량을 올해 400만대까지 늘리겠지만, 폴더블 특성상 생산량을 더 늘리기 어려워 아이폰에 대응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다.

갤럭시 S22는 성능을 대폭 개선할 전망이다. AMD와 함께 만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처음 장착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2억화소 이미지센서 등 다시 한 번 플래그십다운 성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애플이 9월 중으로 아이폰 13을 공개하려는 상황,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 FE를 출시하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FE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보급형 모델로, 지난해에도 갤럭시 S20 FE가 적지 않은 인기를 끌었던 바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공식 SNS에 마

케팅 이미지를 잘못 올렸다가 삭제했다. 9~10월 공개가 유력하다.

노트 시리즈 단종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근 상표권을 갱신하면서 노트 시리즈만 제외한 것. 이미 S펜을 라인업 전체에 적용된데다가, 하반기 언팩을 대신한 Z시리즈가 노트 인기를 넘어서면서 필요성도 낮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갤럭시 플래그십 라인업은 플래그십 바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시리즈와 폴더블인 Z시리즈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성능을 높이고 연결성을 확장하면서 애플을 견제하고 리더십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굳건한 '노트팬' 설득은 과제다. 이미 노트 소비자들은 노트를 출시하지 않으면 애플을 사용하겠다고 항의를 하는 등 '팬심'을 보여준 바 있다. 삼성전자도 아직 공식적으로는 노트 단종에 부정적, 틱스터들도 새로운 노트 시리즈가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정의선 “모빌리티·로보틱스 기술 인류 위한 것”

(현대차그룹 회장)

국회 모빌리티 포럼 3차 세미나

연구개발 현황·미래 발전방향 발표  
“안전 등 중점 두고 차근차근 개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등의 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은 모든 인류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선 회장은 13일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국회 모빌리티 포럼’ 3차 세미나에서 로보틱스 연구개발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 회장 이외에 국회 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 협회장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축사에서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등의 기술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결국 우리와 후손을 포함해 모든 인류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라며 “로보틱스는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오로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안전 등에 중점을 두고 기술을 차근차근 개발해 나갈 것”



공영운 현대차그룹 사장(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권성동 국민의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13일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국회 모빌리티 포럼 3차 세미나에 참석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의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일찍이 로봇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역량을 축적해 왔으며, 최근에는 세계 최고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력을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등 로보틱스를 주요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고 과감한 투자 및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동진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장은 주제 발표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은 센서 퓨전을 통한 환경인지기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판단기술, 메카트로닉스를 이용한 제어기술 등 기본적인

로봇 시스템 구성과 매우 유사하다”며 “이 점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서 로보틱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율주행, ADAS 등 현대차그룹의 기술 역량이 로보틱스 기술 개발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의 파급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총 5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국내 모빌리티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철저한 현지화로 美 시장 지배력 강화”

>> 1면 ‘조현준, 포스트코로나’서 계속

조 회장은 9월 초 중공업부문의 첫 미국 생산기지인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방문해 미국 시장 동향과 전망, 향후 전략 등을 점검했다.

이어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빌 해거티 테네시주 상원의원과 만나 멤피스 생산현장을 함께 시찰하고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회장은 해거티 상원의원에게 테네시 전력청과의 사업 협력을 제안했으며 양측은 중전기 분야의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테네시주 주요 대학과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 업체들을 활용한 부품 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멤피스공장은 생산량 확대를 위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증설을 추진 중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멤피스 공장은 연

산 초고압변압기 6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효성은 이와 함께 향후 기대되는 미국의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무효전력보상장치(STATCOM)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 공략도 본격화한다.

조 회장은 “미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의 핵심”이라며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고객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미국 시장 지배력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 MZ세대 절반 이상 “마트보다 온라인서 구매”

전경련 유통현안 20·30 의견 조사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48% 찬성

MZ세대 절반 이상이 온라인 소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 완화와 중고차 업종 대기업 개방 등 규제 완화에도 긍정적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유통현안에 대한 20·30세대 의견조사’를 실시해 13일 공개했다.

그 결과 20·30세대 소비자 55.3%가 평소 소비하는 물품을 주로 모바일(37.1%) 또는 온라인(18.2%)을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19.3%), 편의점(15.3%), 슈퍼마켓(7.3%)이 그 다음이었다. 전통시장은 1.2%로 미미했다.

전경련은 전통시장이 모바일·온라인 위주의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20·30세대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모바일·온라인 거래를 주로 활용한다고 응답한 20·30세대를 대상으로 향후 모바일·온라인 구매를 늘릴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거의 대부분(96.7%)이 현 수준을 유지(53.2%)하거나 늘릴(43.5%) 계획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바일·온라인 거래를 현 수준보다 줄일 것이라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구매 물품은 배달음식, 음·식료품, 패션제품, 가전제품, 가정용품 등 모든 물품이 73.2%에 달했고, 신선도 관리가 필요한 음·식음료를 제외한 모든 물품을 모바일·온라인으로 구매한다는 응답은 20.0% 수준이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법안에는 찬성이 48%나 됐다. 반대(11.6%)보다 훨씬 많았다.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참여하는 데에도 53.6%가 찬성했다. /김재용 기자

## 코로나 여파에 명절선물도 온라인 구매 ↑

>> 1면 ‘온라인 집중 화장품’서 계속

올 추석명절 예산을 예년에 비해 줄일 것이라 응답이 많았다. 명절 선물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삼성카드사는 지난 8월 빅데이터 플랫폼인 ‘LINK 파트너’를 활용해 20~65세 회원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약 900여 명의 리서치 데이터를 통해 올해 추석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추석 예산 계획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리서치 응답자의 대부분이 올 추석 예산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비슷하거나(51%) 줄어들 것(42%)이라고 답했고,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답한 응답자(7%)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꼽았다.

명절 선물 구매처로는 온라인의 선호도가 높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구매 비중이 높아졌다. 추석 선물 구매처에 대해 질문한 결과(복수응답)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40%), 온라인 쇼핑몰(34%), 대형마트 온라인몰(22%), 전통시장(18%), 백화점 온라인몰(12%),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11%)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추석 음식 준비는 여전히 오프라인이 강세였다. 추석 음식 구매처에 대한 응답(복수응답)은 대형마트(61%), 전통시장(46%) 순으로 오프라인이 온라인 쇼핑몰(17%), 식품 전문 배송 온라인몰(7%)보다 높게 나타났다. /권소환 기자 think@